

한교총, 저출산 극복 대중국 교류 추진 나서

저교위 평단협과 업무협약 맺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은 지난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교위), 한중기독교교류회(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KCCF),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오수철 장로, 이하 평단협)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구소멸위기 극복 및 대중국 교류 협력 증진, 평신도 사역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지평을 확장했다고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날 저교위와 체결한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돌봄 친화 사회와 세대통합 공동체 형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협력을 회원교단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또 KCCF와 대중국 기독교 교류를 위한 공식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KCCF를 대중국 기독교 교류에 관한 협력 및 대외 교류 창구로 지정했다. KCCF는 앞으로 중국기독교협회 및 중국 삼자예국운동위원회와의 공식 교류, 중국 정부 종교 관련 부처와의 정책 교류, 중국 신학교·기독교

교육기관과의 학술·인적교류 등을 한교총과 긴밀히 협의해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와 포럼, 국제행사 개최 등 폭넓은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측은 한중 기독교 교류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2026년 대학총장 공동해외연수회 개최

‘AI 시대와 기독교 대학의 미래’ 주제로 35명 참가



대학총장포럼회장 정상운 성결대 전 총장은 지난 7월 7일부터 11일 베트남 사파에서 ‘2026년 대학총장 해외연수회’를 가졌다.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회장 최대해 대신대 총장)와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피영민

한국침신대 총장)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AI 시대와 기독교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현직 총장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디지털 혁명과 AI 시대 한국기독교 대학들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심도 있게 개진했다.

세미나에서는 감신대 유경동 총장이 ‘4차산업 AI와 신학교육’, 서울신대 황형형 총장이 ‘서울신대대학교 AI교육혁신 성과 보고’를 각각 발표하며 기독교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혁신 역량과 대안을 나누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수회 전체를 주관한 대학총장포럼 정상운 회장은 개회사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교육 환경을 빠르게 재편하는 오늘날, 기독교 대학들은 단순히 시대 변화를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시대를 선도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 문명을 해석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제도 종교계 역할 찾아야

넥스트정책연 첫 심포지엄… 책임과 역할 다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속에서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심포지엄이 지난 3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렸다.

넥스트정책연구원(연구원장 신형식, 이하 NPI)이 주최하고, CIS 기독교IV가 협찬한 이날 심포지엄은 신형식 원장(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선미 교수(한신대 사회복지과는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한 대전환—통합돌봄시대, 국가·지역사회·종교계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통합돌봄 시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종교기관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이호영 사무총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미래’에 대해, 숭의여자대학교 이지백 사회복지과 교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생태계 구축’에 대해,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진종곤 부장은 ‘통합돌봄협력체 구축 및 세부 실천 계획 필요’에 대해 각각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정부가 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 장로교회 한자리… “회개와 연합으로 사명 감당”

한장총,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이선 대표회장)는 12일 인천 계양구 청운교회에서 ‘내 앞에서 행하 여 완전하다’는 주제로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장총 26개 회원교단 총회장을 비롯해 교계 인 사들이 참석해 장로교회의 연합과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을 되새겼다.

이선 한장총 대표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 저출산과 다음세대의 위기, 윤리적 혼란과 영적 침체라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 장로교회는 회개와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로교단 연합의 비전이 담긴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장로교단들은 종교개혁 정신 위에 세워진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해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다할 것을 결단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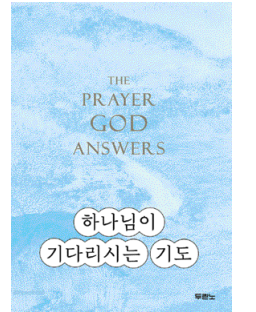
신간 소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기도’라는 용어가 넘쳐나는 시대, 역설적이게도 응답 없는 현실에 지쳐 기도 생활이 식어 있거나 기도를 부기운 속제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 책은 그 모든 기도를 걷어 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본질에만 집중한 ‘순정’의 기도책이다.

저자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불안으로 가득했던 나치 시대 한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낸 인물이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감정적인 고양에 기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순전한 기도’를 담백하면서도 힘 있게 이야기한다. 시대를 초월한 아놀드의 통찰에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묵상적 해설을 덧붙여 오늘날의 독자를 위한 가교 역할을 맡았다. 두 저자는 기도를 권면적인 지식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인격적인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

저자들은 ‘기도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소원 성취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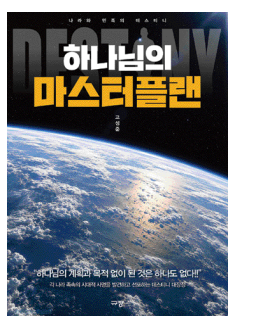
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가장 정직한 반응임을 역설한다. 특히 성령이 시작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세상의 고통을 품는 공동체적 간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수많은 현대 영성 콘텐츠 속에서 이 책은 하나님 중심의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게 돕는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되어 가는 영적 회복의 여정에 단단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저자 에버하르트 아놀드, 리처드 포스터 / 역자 김주성
출판사/도서출판 두란노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이 책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역할을 ‘데스티니’라는 관점에서 풀어냈다. 또한 저자의 데스티니 시리즈 3부작의 완결편이다. 한국, 일본, 중국, 이소코, 미국 등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명한다. 개인의 부르신 역시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적 사명과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데스티니를 계획하셨다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열방과 족속이 있는가? 그 나라와 민족의 특징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어둠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오리지



널 데스티니가 회복된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선교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저자/교성준 출판사/규장

Let's Dream Camp

하나님나라를
부탁해

대상 : 초등학생 40명 (한교회 10명 이하)
문의 : 권영호 목사 (010-4748-2020)

Dream Camp Ministry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도록 기도하며
캠프를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의 Dream Camp와
중·고등학생 대상의 Next Dream Camp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합니다.

보다 많은 다음 세대의 참여를 위해
참가비 없이 진행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참가신청과 세부 일정 등
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QR코드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2026 Next Dream Camp

말씀으로 떠나는
믿음 여행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사상과 마음을
준비하소서

대상 : 중·고등학생 20명
문의 : 박윤국 목사 (010-7130-8525)

기간 | 2026년 8월 3일(월) ~ 5일(수)

장소 | 더인테라호텔 평택